

화합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다

종교연합바자회 수유동 삼총사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서울 수유동 삼총사와 주민들은 종교간 벽을 허물고, 종교화합과 지역공동체의 모델이 되고있다. 수유동삼총사로 유명한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 박승화 목사(송암교회), 정무용 신부(수유1동성당)는 2000년부터 매년 1회씩 종교연합바자회를 열어 난치병과 싸우는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억 2300여 만원을 모금해 모두 159명의 어린이에게 사랑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에도 서울 화계사 제일선원에서 난치병 어린이 20명에게 성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각 단체 신도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과 옷가지, 생활용품 등을 직접 팔아서 마련한 성금 전달식이라 더욱 뜻 깊다.

수경 스님(사진)은 "어린이의 아픔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에도 고통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3개 종교가 하나가 돼 고통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종교화합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했다. 종교화합의 실천운동 바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간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종교편향'으로 2008년 불교계 안팎은 한 해 동안 갈등 구조였다. 하지만 종교 본연의 자비와 행복,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들 또한 적지 않다.

구립 17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9회째 조계사 일주문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성탄축하메시지를 걸고 종교화합의 뜻을 전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밖에도 수유동 삼총사, 무등산풍경소리, 부산열린종교모임, 허운 스님과 정홍규 신부를 비롯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종교언론인협의회 등 곳곳에서 종교화합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했다. 또 도법 스님 등 종교를 망라한 생명평화탄발순례와 수경 스님, 문규현·전종훈신부가 함께한 오체투지 순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화합의 하모니는 울려 퍼졌다.

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쉽게 잊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기에 2009년 종교계 기상은 '맑음'이다.

이상연 기자

공동선실천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생명·평화'의 하모니

종교를 뛰어넘은 하모니

부산에서는 가톨릭 합창단의 찬불가 소리가, 불교합창단의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화합의 현상이 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종교인들이 상호간의 친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종교화합에 힘쓰는 공동선실천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음악회가 바로 그 곳.

2001년 성당에서 성탄을 축하하며 시작된 음악회가 2008년 11월 26일 여여선원에서 각 종교 성직자 등 200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9회째를 맞이했다.

'생명존중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인들의 음악회'는 1~6회까지 성탄절 축하 음악회를 열어오다 2007년부터는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각 종교인들이 함께 부처님오신날 기념 음악회를 열면서 소통의 불씨를 확실하게 뒀다.

원불교 대표 양명환 총장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음악회는 참석한 모든 종교인에게 진정한 화합과 종교적 희열감을 안겨준다"며 "종교의 목표가 신의 정상이라고 본다면 종교는 서로 다른 등산로를 선택한 것과 같은 뿐 결국은 같은 지점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무등산풍경소리

환경보호를 위한 나눔의 문화

광주에는 종교간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를 위한 나눔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무등산풍경소리가 있다.

무등산풍경소리(이사장 지장)는 광주시 궁동 원불교교당에서 구립 20일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년을 맞이하며 68회째 생명과 환경의 메시지를 변함없이 전하고 있는 무등산풍경소리 관계자는 "성탄 축하를 위해 교회나 성당에서 음악회를 열고 스님, 교무님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무등산풍경소리가 아니면 쉽게 보지 못하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무등산풍경소리는 부처님오신날이면 목사님, 신부님이 대웅전 앞마당에서 축하인사를 건네는 등 종교를 초월한 생명존중과 화합의 정신을 보여왔다.

무등산풍경소리 공동대표인 진화 스님(중심사 주지)과 최명진 목사(미래에서교회)는 산악음악회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환경과 생명, 영성과 나눔 등을 다양한 문화코드를 매개로 해서 시민사회로 이끌어냈다. 7년 전 처음 종교의 벽을 허물고 무대가 울려졌을 때에는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는 이제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의 장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



부산열린종교모임

축구로 화합한 성직자 축구대회

음악으로 화합을 전하는 종교인이 있는 반면 축구로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이 있다.

2008년 9월 17일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성직자운동장에서는 율동동 신부(부산 송도성당), 안하원 목사(새날교회), 김강석 교무(남천교당) 등 종교계 대표자 및 범어서 승가대학 학인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5대 종교 성직자 축구대회'가 열렸다. 불교계 대표인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은 "종교편향문제도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성직자들이 화합된 참모습을 보여주 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열린종교모임은 1998년 부산지역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직자들이 모여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2000년 5월 18일에는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열린종교 시민대학'을 개설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교를 소개하며 종교간 화합과 대화를 이끌어 왔다.

불교팀 감독 하림 스님(미타선원 주지)은 "평소에는 종교인들의 교류가 어렵지만 정기적인 축구대회를 하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부축하면서 종교인이기 전에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교감을 한다"며 "인구 절반이상의 종교인들 간의 화합을 기원하면서 뛰면 더 끝이 잘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허운 스님·정홍규 신부

종교의 벽 허물고 인생의 동행자

신부 같은 스님, 스님 같은 신부로 통한다는 허운 스님(동화사 주지)과 정홍규 신부(경산성당)는 7년 전 인연을 맺었다. 현재 두 성직자의 교류는 신자간의 교류로 확대되면서 종교의 진정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소 108배에 관심이 많았던 정홍규 신부는 허운 스님에게 절을 배웠다. 정홍규 신부는 절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심신운동 109배를 전파하고 있다. 2005년 제35회 '지구의 날'에는 대구 동성로에서 스님과 신부님들이 '지구공경 108배'를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또 정홍규 신부는 부처님오신날에는 성당 주변에 연등을 걸고, 허운 스님은 성탄절에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보는 아름다운 종교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0여 년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은 이미 종교를 떠나 있었다. 인간적 고뇌에 대한 고민을 서로 상담하는 동행자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허운 스님은 "정홍규 신부가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서로 갈라지는 시냇물이 됐으나 우리는 다시 큰 곳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각자의 길에서 성숙한 종교인으로 상대에 대한 형식적 관용이나 단순한 수용에서 벗어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통해 알아가는 진정한 화합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스님과 정홍규 신부에게서 진정한 도반의 향기가 느껴진다.

화제의 신간

己丑年 己丑年 己丑年

핵심래정 택일지

365일 매일 한 장씩!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스프링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날랐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말이 낫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공개!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해답이 없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 공개! 882장 원상본으로 한눈에 훑어 알 수 있게 조사법 핵심에 담아! 신국판/정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정석택스님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